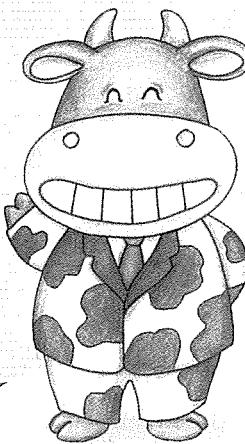


BUSINESS



(주)우성사료

경산공장 정부 HACCP 인증 획득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지난해 12월27일 농림부로부터 경산공장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보다 깨끗한 배합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2005년 1월 HACCP 팀 가동 후 10개월의 기간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노사가 함께 노력해 이룩한 쾌거다.

경산공장은 1983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전체 작업장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그 속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여서 문제가 발생할 요소를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장 바닥 전체에 애포시를 깔았다. 이로 인해 시멘트 바닥이 충격이나 마모에 의해 발생하는 분진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바닥면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단청소도 걸레로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깨끗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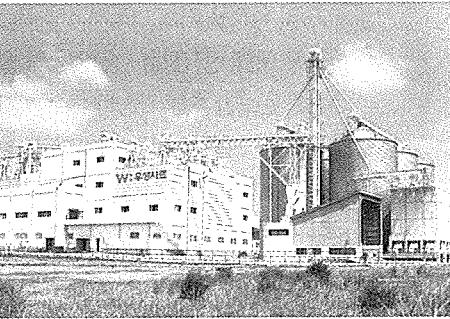
또한 이와 함께 항생제 실을 별도 분리해 약품의 오·투입으로 인한 위해요소 발생을 최소화했으며, 노후한 시설을 새롭게 교체,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배합사료 생산체계를 갖추었다.

김광영 생산부장은 “사료공장 HACCP 인증을 위해 팀 전원이 올 초부터 토요일과 휴일을 반납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위해요소 차단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대리점사업전진대회 실시

우성사료가(대표이사 지평은) 2006년 대리점사업전진대회를 전국의 대리점 사업단과 영업조직 및 영업스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1~12일 양일간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More Clean, More Happy”, “더 깨끗하게, 더 행복하게”란 행사주제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행사의 주제에 걸맞게 어린이 학창단의 ‘행복한 세상’이라



는 학창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한 잔잔한 영상으로 공식행사의 막을 올렸다. “More Clean, More Happy”는 축산환경은 더욱 깨끗하게, 축산인과 종업원은 더욱 행복하게 하겠다는 우성사료의 경영이념으로 현재의

축산시장과 앞으로 나이갈 축산업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 지평은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지난 한 해 동안 영업일선에서 노력한 대리점 사장단과 영업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내사업 안정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우성사료는 이미 2003년 베트남 등나이성에 우성비나를 설립해 이듬해부터 흑자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중국 산동성 덕주시에 해외법인 2호인 우성사료유한공사를 설립해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영업본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성민 상무이사의 2005년 사업성과 보고에 이은 2006년도 사업 전략에서는 친환경 축산업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의 기능성 사료 공급과 서비스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성공적인 대리점 사업과 고객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을 통한 품질강화, 지속적인 기술투자확대, 이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와 세계적인 기업파의 기술제휴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것을 시사했다.

제8기 우성사료 여성낙농대학 졸업식 거행

우성사료가(대표이사 지평은) 올해 들어 첫 여성낙농대학 졸업식을 치렀다.

지난 1월19일 그랜드 웨딩홀(충북

보은)에서 보은지역내 여성낙농인 1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졸업식은 2003년 10월, 제 1기 보령 여성낙농대학 이후, 제 8기 째로 총 193명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여성 전문낙농인 육성의 산실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1년 간의 과정으로 구성된 여성낙농대학은 “내 지역 축산발전은 내 손으로..” 라는 캐즈플레이즈를 내걸고 2002년 11월 충남 보령지역에서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첫 개강을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여성낙농인 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일년간 보은여성낙농대학을 이끈 민석홍(우성사료 지역부장)씨는 “낙농산업의 경우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목장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 국제경쟁력을 갖춘 여성 낙농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손근남 이사(우성사료 축우PM)는 올해도 전국 어디서나 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과 축산선진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한국형 현실에 맞는 서비스와의 조화를 이룬 토클마케팅을 실현하여 낙농가의 수익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TSH 대한제당 사료사업본부

무지개사료, 잠실 본사로 이전

지난 1월 대한제당 사료사업본부가 인천공장에서 잠실 대한제당 본사 사옥으로 이전했다.

무지개사료는 사료공장의 HACCP 획득과 영국 BOOM PAULS사 등과 기술협력을 통한 신제품개발 등 제품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본사 이전으로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대한제당은 고 인송 설경동 회장이 회사를 세운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드림2010비전과 경영기본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주)CJFeed

군산 공장 HACCP 인증 획득

군산 공장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고객의 안전한 먹거리로 위한 노력이 지난 12월 농림부 HACCP인증을 이끌어 냈으므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CJ는 05년 5월 인천 공장의 업계 최초 농림부 주관 HACCP 인증을 시작, 군산 공장의 인증을 끝으로 위생·안전을 위한 사료 생산 라인 구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군산 공장은 이미 2001년 네덜란드 SGS의 HACCP 인증 이후 주기적인 검증을 통해 일찍부터 시스템이 정착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보다 까다로운 농림부의 HACCP를 인증 받아 명실공히 Feed to Table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기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One Line 생산 방식으로 HACCP의 CCP인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 투자와 인력의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 이에 김성호 사업부장(공장장)을 주축으로 공장 내 운영 중인 TPM, 6시그마 등의 모든 혁신 활동을 HACCP로 집중, 대대적인 설비투자도 함께 진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공장의 역량을 총 집중시켜 성취한 결과 농림부 HACCP 인증을 받는 쾌거를 얻었다.

(주)삼양사

2006 사료BU 사업전진대회 개최
삼양사 사료BU(BU장 강신우)는 지난 12일 2006년 사료BU 사업 전진 대회를 실시했다.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영업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

고 있는 '고객을 마님 모시듯이'란 주제의 이번 사업 전진대회에서는 을 한해 축산업 경기가 순탄치 않은 않을 것이라 예상 속에서도 판매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나아가 업계 TOP5에 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짐했다.

특히 작년 12월 1일자로 사료BU장에 취임한 강신우 BU장은 "2006년은 전 부문 Turn Around의 원년이 되자"며 "제 2창업의 각으로 영업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삼양사 사료 BU에 고객 최우선의 마인드와 철저한 고객응대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강조했다.

삼양사 사료BU는 이번 전진대회에 '총각네 아래가게'의 사장인 이영석씨를 특별 강사로 초빙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의 비결'과 '내가 즐겁게 일하면 고객이 즐겁고 고객이 즐거우면 다시 내가 즐겁다'는 Fun Cycle에 대한 강연을 듣고 고객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영업활동으로 올해 목표를 꼭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더욱 확고히 했다.



그 동안 대한사료는 2003년 SGS 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 : 2000 및 HACCP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초부터 농림부 HACCP를 인증 받기 위하여 인천공장에 품질관리 팀을 위시한 HACCP 인증 추진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장으로 유입 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사료의 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적용 하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검증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대한사료의 사료 생산본부의 한광덕 전무는 "이번 HACCP 인증획득은 지난 1년간 사료 제조의 전 공정에서 식품이라는 개념의 시스템을 접목하려고 한 전 직원들의 피와땀의 결과"라며 "인증 자체에 만족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지키고 나아가 사양가로부터 인정받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한사료공업(주)

인천공장 농림부 수의과학 검역원 HACCP 인증
대한사료공업(주) 인천공장은 지난 12월 13일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았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선두적인 공장으로 거듭나겠다”고 공표했다. 대한사료는 이번 농림부 HACCP 인증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시스템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며 이와 더불어 친환경 이미지에 맞는 안전한 배합사료의 생산에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주]우성양행

2006년 승진인사 발령

우성양행(대표이사 박영선)은 2006년 병술년을 맞아 지난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팀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2006년 목표달성을 및 2010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전력투구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팀개편 및 승진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 신규 관리이사 영입

- 관리본부 : 나기선 이사

■ 승진인사

- 과장 : 우진제(품질관리팀), 최대성(경리팀)

- 대리 : 김진황(동물약품사업팀), 명지영(경리팀)

청미바이오(주)

기술연구소장으로 최성현 박사

영입과 승진인사 발령

청미락토, 피그펌, 애니펌을 생산하는 바이오 벤처기업 청미바이오(주)는 연구개발 기업으로 거듭나

기 위하여 기술연구소장을 영입하였다. 이번에 취임한 기술연구소장 최 성현 박사는 충남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충남대학교 겸임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전공은 발효미생물학이다.

한편 기술연구소에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 신입사원을 영입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에 HACCP 인증을 (SQF 2000CM) 받았으며 2006년 12월 28일 재 인증심사를 무사히 마쳐 보다 더 원숙한 제품의 안전판리를 하게되어 제품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2006년도 승진인사발령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하재명 부장 (차장 ==> 부장)
- 라동식 대리 (시원 ==> 대리)
- 이동한 시원 (기술연구소, 충남 대 동물자원학파)

[주]중양진테크

다이하드(Die-Hard)와 로이(Roy), 100만 스트로 생산의 위업달성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하며 전 세계로 젖소 동결정액을 공급하고 있는 ABS사에서는 최근 기념비적인 일을 맞이하였다. 최근 다이하드(Die-Hard)와 로이(Roy)가 종축으로서는 믿기 힘든 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다이

하드(29HO8538)는 체형이 우수하며, 서울우유 조합원 및 국내에도 수입 판매되었던 종모우이다. 100만개 생산에 근소한 수량만을 남겨

놓고 있는 다이하드와 로이는 향후 2주내에 목표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만개의 정액 생산은 전례적으로 사우쓰윈드(Southwind)와 컨빈서(Convincer)만이 달성했으며 생우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사양기술과 노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고도 달성하기 힘든 수치로서 향후 ABS사의 글로벌 마케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ABS사의 정액은 서울의 (주)중앙진테크에서 수입, 보급하고 있다.

[주]송강GLC

독일 미니튜브(Minitube)社와 독점공급계약 체결

송강 GLC(대표이사 김영철)는 2006년 1월부터 세계 제1의 돼지 인공수정 기자재 제조공급업체로 알려진 독일 미니튜브(Minitube)社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송강GLC가 한국에서 가축인공수정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회사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셈이다.

승진인사 발표

(주)송강GLC(사장 원성오)는 2006년 1월 1일부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 김영철 이사 ► 상무이사 대표이사로 승진
- 심재국 차장 ► 부장으로 승진(A/S팀 및 소비자 상담실장)